

3. Romanticism

19세기의 Romanticism은 18세기의 詩文學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낭만주의 음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낭만주의란 어의 조차도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다시말해서 **불확실하고도 모호하며 비현실적이고도 감정적인 취향을 어림잡아 낭만적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음악학자 Riemann은 어떤 역사에서도 Classic과 대응하는 Romantic의 정신이 존재해 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은 낭만주의가 양식의 규범을 따르려는 고전적 입장과 대립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근본적 관점에서 보면, 19세기의 음악이 구조적 면에서 그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뿐 아니라, 전시대의 어떤 양식이건 구별 없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낭만주의적 양식으로 치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낭만주의가 단순히 낭만적 취향(달리 표현하면 주관적 관점)이라는 허울을 둘러 쓴 허구적 양식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19세기 Romanticism의 주류를 이루는 낭만주의 양식이란 생산성이 없는 소모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더우기 낭만주의 양식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Beethoven의 음악이 낭만적 양식을 낳았다는 해석은 모순된 것이다. 그 보다는 **19세기에 와서 그 전시대의 양식 모두를 낭만적 양식화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 (다만, Beethoven을 위시해서 Palestrina, J.S.Bach, Handel, Mozart, Haydn, 등의 작품 혹은 양식들의 경우 그 강한 개인적 성격으로 인해서 쉽게 드러난 것 뿐이다.)

Beethoven(1770-1827)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 보다 짧은 삶을 살았던 Weber(1786-1826)는 독일 낭만주의 opera의 선구자로서, Franz Schubert (1797-1828)는 독일 예술가곡의 완성자로서 낭만주의적 양식을 앞서간 사람들이다. 이들 모두가 Beethoven보다는 좀더 낭만주의에 가깝게 접근해 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낭만주의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도래할 양식의 규범을 실천해서 보여주었다.

Schubert는 18세기 독일 시문학의 전성기에서, 또 한편으로는 Berlin School 가곡운동의 제3세대 작가로서, 결과적으로는 독일 Lied의 완성기에 때맞춰 등장했다. 그는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성하고도 남을 만큼의 과업을 짧은 생애 동안 완수해서 650곡의 아름다운 가곡을 남겼다. 그가 좌절에 빠진 "독일어의 예술가곡화"라는 해오랜 작업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보답한 것이라고는 가난과 병에 찌들어 일찍 죽게 한 것 뿐이다.

그의 뒤를 이어 Schumann, Brahms, Wolf, Mahler를 거쳐 가며 독일 시문학은 아름다운 양식의 Lied로 찬란하게 꽃피웠다. 반면에, 독일은 가곡에 몰두했기 때문에 비교적 독일적 opera에 대해 소홀했다.

Mozart 이후의 Singspiel은 Weber로 계승 되었다.

그는 Mozart에서는 음악을, Gluck에서는 극음악의 정신을 본받아 고전적 설화를 무대화시켰다. 그의 명작 Der Freischutz는 Goethe Faust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지닌다. 이런 양식이 Wagner를 자극시켜 마침내 독일적 극음악을 완성에 이르게 했다.

본격적으로 낭만주의를 주도했던 첫세대 음악가들 대부분은 19세기 초에 태어났다. 현대 관현악법의 양대 산맥이라 부르는 Berlioz(1803-69)와 Mendelssohn (1809-47), 낭만주의

Piano 양식을 이룩한 세 사람의 거장 Chopin(1810-49), Schumann(1810-56), Liszt(1811-86), 낭만주의 opera의 쌍벽을 이루는 Wagner(1813-83), Verdi(1813-1901), 등이 각각 비슷 시기에 태어난 것은 과연 우연이라 할까?

19세기의 막이 오르면, 이른바 violin의 鬼才라 불리는 Paganini (1782-1840)가 먼저 등장한다. 사람들은 그를 "악마의 제자"라고 불렀지만 오히려 낭만주의 복음을 알려주는 천사였다. 그의 출현과 함께 19세기가 "연주의 시대"로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M에 가까운 큰 키와 깡마른 몸집에 까만 양복을 입고 얼굴에는 하얀 밀랍같은 분을 바르고 손에는 빨간 장갑을 끼고 명공 Guarneri가 만든 violin을 들고 그야말로 악마를 연상케 하는 신출귀몰의 솜씨로 Italy전역을 전율에 떨게 만들었다.

그가 유럽에 등장한 것은 1828년 봄으로, Vienna에서 14차례 concert를 개최해서 Mozart 이후 또다시 유럽을 놀라게 했다. 다음 Prague를 거쳐 Berlin, 29년에는 Warsaw를 방문해서 piano의 시인 Chopin을 감동시킨다. 이어서 Weimar의 Goethe를 놀라게 했고 Hamburg의 Heine를 감격시켰으며, 1830년에는 Frankfrut에서 낭만주의음악의 지성을 대표하는 Schumann에게 큰 격동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해서 31년 마침내 Paris에 나타났는데, 그 열광의 환호 속에서 당년 21세의 Liszt는 "미처 죽거나 아니면 피아노의 Paganini가 되겠다!"라고 외치며 새로운 생으로의 전환을 결심한다.

그 후 Liszt는 어언 6년동안 두문불출 각고 끝에 자타가 인정하는 Piano의 Paganini가 되었다. 마침내 1839년 그 역시 Vienna를 기점으로 해서 약8년간 유럽을 종횡무진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Paganini는 그의 화려한 생애와 대조적으로 비참하고 외롭게 죽었다.

Paganini의 출현은 특히 piano 연주양식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년 20대 초의 젊은 Chopin, Schumann, Liszt의 화려한 concert etude(연주회용 연습곡)들이 Paganini의 발자취를 따라 차례로 출판된 것을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연습곡들은 모두 Paganini의 24Caprice Op.1(1820)을 본받은 것이다.

이들 중에서 Liszt는 가장 늦었다. 그가 무명의 Chopin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미 Etude Op.10, 25는 완성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한 piano 양식과 기술에 도달했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Chopin 생전에는 작곡 보다는 pianist로서의 길에 전념했다.

19세기처럼 한사람의 천재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했던 예를 다른 시대에서 찾기란 어렵다. 음악사가 A.Einstein은 "18세기에는 철학가가, 19세기에는 대연주가(virtuso), 20세기에는 지휘자가 폭군 노릇을 했다"고 말한다.

특이한 개성이 낭만주의적 양식을 주도했다.

그 중에서도 Paganini는 가장 독특했으며 그로 인해서 모든 연주가들의 우상이 되었다. Chopin 역시 그 나름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지니고 있어 당대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Bellini(1801-35)와 Field(1782-1837)에게서 크게 영향 받았다.

Brahms, Grieg는 Schumann을, Dvorac은 Brahms의 추종자였다. Wagner는 Weber를 존경했으며, Bruckner, Wolf는 Wagner를 추종했다.

바로 이같은 개성의 의식은 Schopenhauer의 의지론에서 출발하여 Nietzsche의 초인론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전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의식이 19세기를 개인주의적 세계로 바꾸어 갔다. 그 기저에는 도시화와 산업사회가 가져 온 중산층의 이기적 생활관이 깊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piano의 등장은 바로 이같은 중산층의 진출을 상징한다.

Baroque 거대한 organ은 Neo-Gothic 교회양식의 권위를, harpsichord는 Rococo적 살롱의 귀족 취향을 상징했다.

piano는 harpsichord에 비해 천박하지만 소리의 변화가 크고 솔직하며, organ보다 세속적이지만 작아서 실용적이다. 결국 시대가 piano를 선택했다.

piano는 1725년경에 만들어져서 대중화 되기까지 약 반세기가 더 소요되었다. 최초의 명연주자 Mozart와 Clementi(1752-1832)가 Vienna궁정에서 그 솜씨를 겨루었다는 것은 1781년 일이다. 그 뒤를 이어서 Cramer (1771 -1858), Hummel(1778-1837), Czerny(1791-1857)등이 piano주법의 보급에 기여하며, J.Field(1782-1837) Kalkbrenner(1785-1849), Mocheles(1794- 1870),등의 명연주자들이 진출해서 piano연주양식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Piano의 보급은 19세기 초반에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중반까지는 거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 뒤에는 piano 제조기술의 발달과 악보인쇄, 연주흥행사 들의 기여가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새로 대두되는 중산층들의 취향에 piano가 매우 적합했다는 점에 있다.

piano는 그 어떤 악기 보다도 혼자 즐기기에 적당하며, 뿐 아니라 어떤 작품도 연주가 가능하고 또 전문성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또 음역이 넓고, 음색과 음량의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투명한 음향으로 인해 느낌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낭만주의적 취향에 적합한 악기로 부각되었다.

이런 시기에 불멸의 Piano詩人 Chopin이 1831년 Paris에 등장한다.

다음해에 concert를 개최하여 당대 일류의 Kalkbrenner와 한 무대에서 겨루었다. 그는 이 한번의 연주로 파리를 정복했는데, 평생 30회정도의 공개연주로 연주사에 신화를 남겼다는 사실로 그가 얼마나 창의적 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평생 거의 piano만을 위해 작곡했는데, 결코 piano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음향적 환상의 세계를 추구했다. 그의 세계는 극히 주관적이고 몽상적이면서도 깊은 감성의 세계에 이른다.

Schumann은 시문학에 심취한 법과대학생으로 시작했다.

그는 독일 낭만주의 이념의 발원지로 불리우는 Jean Paul(1763-1825)의 Flegeljahr(1805)를 비롯해서, 낭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팔방미인의 천재 E.T.A.Hoffmann의 소설과 비평으로부터 깊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Schumann은 詩的 韻文형식을 Piano양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업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음악비평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음악신문의 주필로서 Chopin, Franck, Brahms등을 세상에 알렸다.

Piano음악은 Liszt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는 뛰어난 기술과 연주로 piano의 연주의 예술적 승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Chopin, Schumann,등의 양식을 대중화시켰고, Bach, Beethoven등의 전시대 명작들의 연주 보급에 기여했다.

piano는 공업화의 시대가 창조한 가장 기계적으로 완벽한 악기이다.(이점은 가장 원시적 구조에서 완성에 이른 violin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일찌기 이렇게 많은 악기를 생산하고 수요했던 기록도 없으며, 또 전문가와 대중의 간격을 이처럼 좁혀 주었던 경우도 없었다.

piano음악은 19세기양식을 대표하며 또 이 시대만이 지니는 독특한 양식을 낳게 했다. 악기가 지니는 개인성, 환상적 음향, 표현의 신축성 등이 이 시대의 모든 음악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과 애착을 불렀던 것이다.

Mendelssohn 역시 pianist로 시작했지만 교향곡 작곡가로 성공했다.

그는 풍부한 재력 덕분에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Leipzig Gewandhous에

정규 orchestra를 설립하여 작곡과 지휘 양면의 생활을 겸하는 행운아로 살았다. 그는 Bach 협회를 설립하기도 하고, 악단을 통해 Bach, Schubert 등의 유작들을 발굴하고 연주해서 세상에 알리는 등의 공적을 남겼다.

19세기 전반까지도 정규 orchestra는 opera좌에 소속된 것 뿐이었다. 그 외에 연주회를 위해서 concert orchestra가 비정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 규모도 작았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Mendelssohn의 orchestra는 진보적이였다. 그의 현진적 악단 운영이 오늘날 유럽의 관현악단을 형성케 하는데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한편 Paris 는 혁명과 전쟁을 치루면서 opera도, 관현악 편성도 그 규모를 늘려갔다. Paris 시민들은 혁명시대에 어찌나 opera에 열광했던지 "낮에는 혁명을, 밤에는 오페라를!"하는 구호가 나왔을 정도였다. Napoleon까지도 opera제작에 열을 올렸다.

그 주제를 보면, 초기에는 주로 정치 풍자극에서 시작되어 후기로 갈수록 구원자가 등장하는 이른바 "구원 오페라"가 유행되었다. Beethoven의 Fidelio도 역시 유형 중 하나이다. Italy의 대가 Rossini(1792-68)는 Paris에 진출해서 Gillaume Tell을 공연하는데, 당시 Paris를 주름잡던 Mayerbeer(1791-1864)와 나란히 Grand Opera로 성공한다. 이 두사람 모두 opera작가로 대부호가 된 것으로 더 유명하다.

Grand opera는 글자 그대로 거창한 규모와 온갖 화려한 예술장르를 동원시키는 것으로 흥행을 노린 양식이다. 따라서 악단의 규모도 상당히 증가되었고 악기 사용도 다양화 되었다. 또 혁명 중에 떠들썩한 정치집회다 제식이다 하는 등의 수선스런 행사에는 많은 인력과 대형 악단이 동원되는 일은 매우 흔했다. 이런 영향이 악단의 규모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켰다.

프랑스의 천재 Berlioz의 거창한 orchestra의 꿈도 바로 이런 세태의 흐름 속에서 얻어졌다. 그의 1837년의 Requiem은 Paris의 거리에서 천명에 가까운 연주자가 연주했다. 이 공연에 5개의 Orchestra와 4개의 Military Band가 동원되었다.

그의 교향곡 Fantastique 등에서 보여준 놀라운 관현악법의 솜씨는 바로 이러한 격동기의 소산이다. 그는 극적 환상과 색채의 표현양식을 관현악에 끌어들이는 공로자로 추앙되고 있다.

독일 제국주의의 출범을 기리는 축제를 위해 Bavaria공국의 Ludwig II가 Bayreuth에 축제극장을 짓고 Wagner를 모셔다가 총리와 같은 봉급을 주면서 12년동안 준비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래서 1876년 Wilhelm I가 유럽제국의 통치자들을 불러 3주야로 축제를 열면서 Wager의 Ring cycle을 관람하게 된다. 이런 덕분에 Wagner는 거대한 opera와 대편성의 관현악단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즉 중산층의 진출에 따라 음악이 흥행예술화 하는 추세 등에 맞춰서 19세기 관현악은 전시대에 비해 두배 이상의 규모로 늘어났다. 이런 경향은 점차로 대형화 되어가는 건축의 추세와 잘 부합된다. 특히 Wagner 이후에 한층 더 가속화되어 Mahler(1860 -1911), R.Strauss(1964-1949)에서 교향곡의 규모는 극대화 된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Wagner를 추종해서 만이 아니라 오리려 독일에게 패배한 Vienna, Paris의 시민들의 Anti-Wagner적 의식에서 더 상승되었다.

19세기 Romanticism의 아름다운 환상이란 결과적으로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일련의 양상이다. 낭만주의는 시대의 현실과 맞설 만큼의 철학적 기반도 없었으며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기에는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소비적이였다. 바로 이러한 모순에서의 갈등이 이 시대 안에서 수도 없는 반론에 봉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희망을 얻지 못한 채 19세기는 몽상 속으로 사라져 갔다.